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19주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제2독서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써 천막을 치고 살면서 하느님의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믿음으로써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내 사라가 임신할 능력을 얻었으며, 또한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들 이사악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은 하느님을 자기 삶과 생각의 중심으로 삼고 오직 하느님만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고수하고 싶어 하는 자신을 깨고 열어서 하느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입각해서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의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굳센 믿음으로 살던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0세기 가톨릭 윤리신학의 대가이지만 고통과 병을 굳건한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제였던 헤링 신부가 한 본당에 잠시 일손을 도와주러 가게 되었는데, 본당의 '특별한 분위기'에 의아해하자, 주임 사제는 한 여교우 집을 방문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모두 그녀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여교우를 처음 본 사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끔찍한 통증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런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애로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제를 향해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슬픔과 병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께 충분히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하느님의 구속 사업에 협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를 방문하고 나온 헤링 신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병을 앓고 있는 이 교우가 제 강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복음 선포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이야기에서처럼 언제 하느님께서 데려가실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간직한 채,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고로, 자신들의 생활로, 자신들의 얼굴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일,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 슬픔을 잘 이겨내는 일,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는 일이겠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든 항상 감사드리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일이고, 또한 치유되는 길입니다. 아멘.



채동호 루도비코 신부 | 안의선교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지혜 18,6-9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제 2 독 서	히브 11,1-2,8-19 또는 11,1-2,8-12
복 음	루카 12,32-48 또는 12,35-40



HIN MALS

사랑(6)

남아메리카 말인 우분투(Ubuntu)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I am because you are).’라는 뜻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전통적인 윤리 사상이다.

어느 민속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한마을의 부족 아이들을 불러 모은 뒤 그들에게 한 가지 제언했다. 멀리 보이는 나무 옆에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과일 바구니를 마련해 놓고, 누구든지 먼저 그곳까지 뛰어간 자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이 통역되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누구 하나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갔다. 그리고 바구니 앞에 이르자 같이 둘러앉아, 과일을 베어 물고 키득거리며 재미있게 나누어 먹었다.

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먼저 간 사람에게 과일을 모두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갔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합창하듯 ‘우분투!’라는 단어가 쏟아졌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의아해하는 학자에게 한 아이가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라고 말했다.

내가 받으면 선물이고 남이 받으면 뇌물(賂物)이며, 내 말은 의견이고 남의 말은 불평이고, 내가 하는 일은 정의(正義)이며 남이 하는 일은 불의(不義)라고 하는 편견과 ‘나만 잘살면 된다.’ ‘나는 선하고 상대는 악하다.’고 하는 잘못된 논리가 팽배한 사회 풍조 속에 살아가는 요즈음, 이러한 ‘우분투 정신’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6-17)

그리하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고 하였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다(마르 12,33 참조)고 하셨다. 또 최후의 심판 기준에서 우리가 주변의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고 안 해준 일이 곧 주님께 해주고 안 해준 일이 되며, 동시에 그것은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는 복 받는 자들이 되든지, 아니면 영원히 벌 받는 곳으로 가는 저주받는 자들이 되든지 한다(마태 25,31-46 참조)고 하셨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며(1요한 4,16 참조), 누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1요한 4,20 참조)고 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마태 22,37-40 참조)고 하였고,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은 어려운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루카 10,29-37 참조). 그리고 성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남아프리카 부족들의 인사말이기도 하는 우분투 정신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랑의 원리이며 공생(共生)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신앙의 숲

변혜연 율리아 시인/ 가톨릭문인회

숲길 걷기를 즐긴다. 체중을 고스란히 받아주는 폭신거리는 숲길에선 언제나 그렇듯이 기분이 좋아진다. 비 내린 뒷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엔 일부러 시간을 내어보기도 한다. 자연이 빚는 아름다움과 섬세함 앞에서 산비둘기 소리를 따라 하는 어린애가 되기도 한다.

이른 새벽, 담양 대나무숲으로 갔다. 대나무숲에서 청량한 아침을 만나고 싶었다. 사각거리는 댓잎의 인사를 받으며 걷다 보니 뻥뻥한 대나무숲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아침의 대숲은 온몸으로 햇살 따듯한 기운을 받고 있다. 댓잎에서 떨어진 아침이슬을 먹고 자라는 야생 죽로차가 대나무 아래서 자라고 있다. 대숲은 바람에 갓 우린 차 한 잔을 나에게 내어준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대숲의 푸른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바람과 댓잎 소리에 나를 맡기고 싶어서 휴대전화도 잠시 꺼보기로 했다. 여러 개의 나무 계단 위로 울울창창한 대나무숲이 제각각 이름표를 달고 있다. 짙게 짙은 대나무와 나란히 걷는 길에서 이름표가 바뀔 때마다 나도 주머니 속 이름표를 하나씩 꺼내 바꿔 달았다. 마음이 답답할 때 다녀갔다는 대밭길을 지나 3번째 길 이름표는 ‘사랑이 변치 않는 길’이다. 이곳을 다녀간 누군가는 변치 않을(?) 사랑을 약속이라도 하듯 대나무에 새겨 놓았다. 그 사랑이 지금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숲은 촘촘한 간격으로 군락을 이뤄 자리하고 있다. 곧게 뻗은 대나무를 따라 시선을 올려 보았다. 대 끝에 걸려 있는 손바닥만 한 하늘에 편지를 써 보고 싶어졌다. “맨살끼리 부대끼며 살아가는 대숲에서 나는 평화를 만났다”고 출구를 알려 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세상과 만나게 된다.

대숲 앞에서 “저 대나무들의 간격을 넓힌다면 대나무숲이 지금처럼 서 있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해 본다. 소나무숲, 전나무숲을 떠올려 보면 대숲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숲다운 숲이 되기 위해 각자의 간격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세상은 2년간의 코로나를 겪었고 아직도 일상의 단계적 회복이라는 ‘위드 코로나’를 살고 있다. 코로나를 겪는 동안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했다. 화상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 이뤄지는 등 새로운 방식을 살아내는 시기였다. 우리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잊어버리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서로의 표정을 읽고 기쁨도 어려움도 나눌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하자. 촘촘한 발걸음들이 모여드는 신앙의 푸른 대밭을 만들기로 하자. 몇 그루 대나무만으로는 서 있기조차 힘들지만 한 그루 옆으로 한 그루, 두 그루가 같이 자랄 때 달달 볶아대는 더위쯤은 시원하게 이겨낼 것이다. 죽순이 쭉쭉 자라듯이 코로나를 살아낸 우리의 신앙도 우후죽순처럼 성장할 것이다.

대나무꽃은 평생에 단 한 번 핀다고 한다. 짧게는 60년, 길게는 120년에 한 번 필 정도로 귀해 만개했다는 꽃소식에 사람들이 모이듯 지금 이 시기가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 서로의 간격을 좀 더 가까이 할 때이다.

‘외모 지상주의’ 시대의 ‘복음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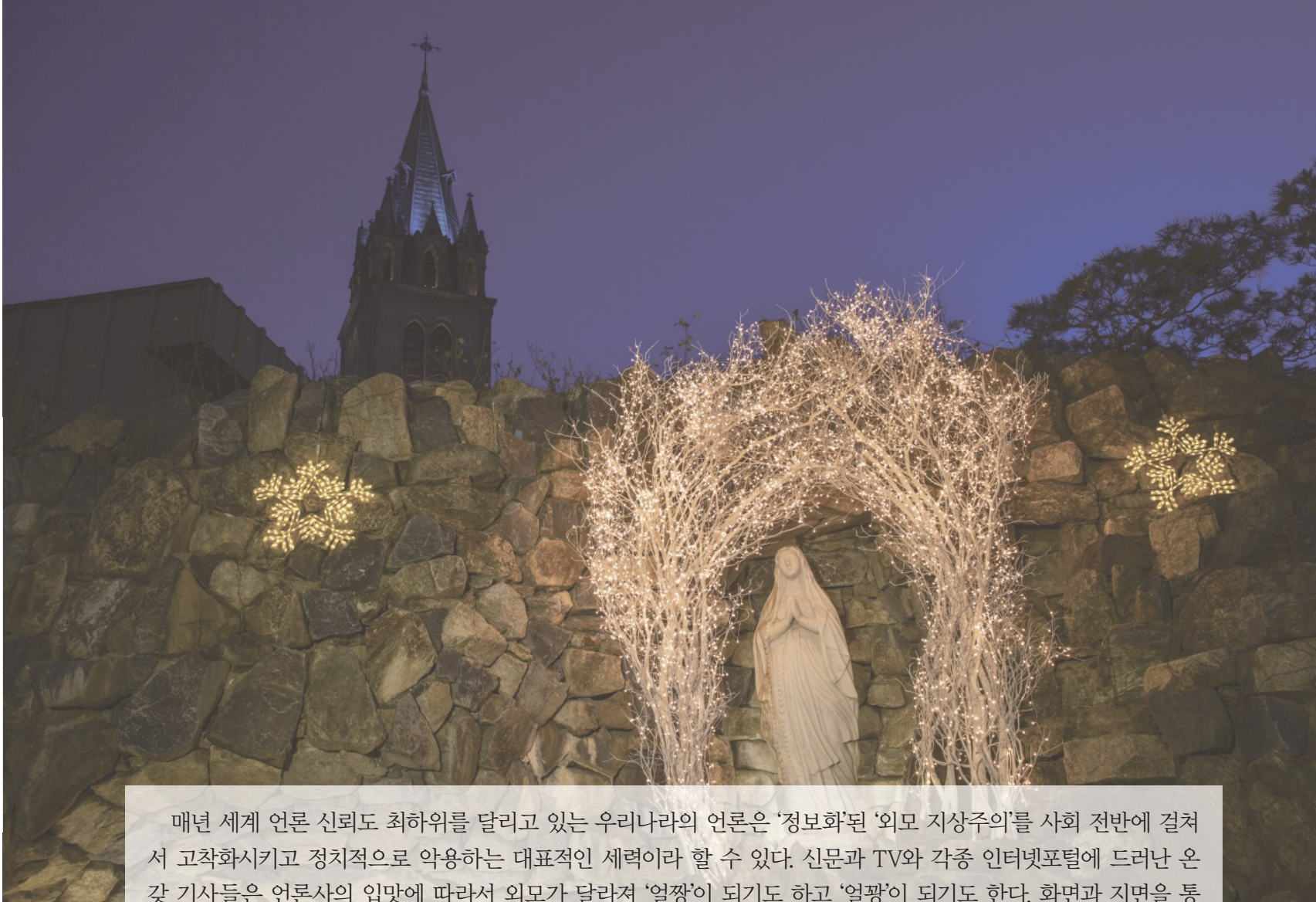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얼짱!” ‘얼굴’이란 말과 최고를 뜻하는 ‘짱’이란 말을 합성한 단어다. 한마디로 얼굴 생김새가 예쁘거나 잘생겼다는 뜻이다. 내 생애에 절대 들어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말을 얼마 전 피정 지도 중에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들었다. 피정을 열심히 해서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였던 걸까? 어쨌든 기분이 좋았다. 말 한마디에도 이러니 진짜 ‘얼짱’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야 외모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으니 ‘얼짱’이란 말이 그저 듣기 좋은 소리에 불과하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외모가 곧 힘인 ‘외모 지상주의’의 세상 속에서 ‘얼짱’이란 곧 최고의 ‘스펙’이 아닌가! 얼굴이 안 되면 공부라도 하고 공부를 못하면 얼굴이라도 돼야 한다는 어느 학교 선생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금언’과도 같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성형’을 하는 노력은 오늘날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과 다르지 않은 거다. 교육 강국인 우리나라가 성형 수술 강국인 이유가 다 있다.

그야말로 ‘외모 지상주의’의 세상이다. 잘생기고 예쁜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인 것이다. 이는 얼굴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가진 재산과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와 신용평가 등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내면에 감춰진 것보다 더 중요하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갈라 5,22-23 참조) 등과 같은 무형의 가치들보다 훨씬 유용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가꾸기보다는 겉모습만 바라보며 겉치레에 더 애를 쓰게 된다. 이는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그렇다. 사람의 됴됨이를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다. 생김새,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가족, 출신학교 등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세상에서 정직함, 진실함 같은 것은 설 자리가 없다. 있는 척하는 삶, ‘리얼리티’는 없고 ‘이미지’만 가득한 삶,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마태 23,27) 같은 거짓된 삶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외모 지상주의’가 ‘정보화’와 맞물려 그 폐해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심화된다는 사실이다.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은 모든 것이 정보로 드러나고 분석되고 파악된다. 정보는 일반적으로 언론매체와 SNS 등을 통해서 노출되고 전파되는데 지면이나 화면을 통해 드러나는 온갖 정보들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외모에 가깝다. 따라서 내면보다 외모에 집착하는 외모 지상주의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노출된 정보를 접하면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 그 자체에 더 주목하게 된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와 사진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외모가 되어 버리고 그 외모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머리에 그대로 각인되어 남는다. 이 시대, ‘기레기’라고 불리는 부패한 언론세력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면서 세상에 온갖 패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매년 세계 언론 신뢰도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은 ‘정보화’된 ‘외모 지상주의’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고착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대표적인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신문과 TV와 각종 인터넷포털에 드러난 온갖 기사들은 언론사의 입맛에 따라서 외모가 달라져 ‘얼짱’이 되기도 하고 ‘얼짱’이 되기도 한다. 화면과 지면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과 부처님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만들고 히틀러와 히로히토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언론은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이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언론을 길들이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자신의 부당하고 불의한 모습을 그럴듯하게 치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중들은 이미 오랜 기간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왜곡된 정보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런 언론에 그럴듯하게 노출되고 싶어서 안달이니 부패한 언론과 독재 권력은 맘 놓고 온갖 패악질을 일삼는다. 그리고 보면 이 시대에 ‘거지 라자로’(루카 16,19-31 참조)가 ‘탐욕스런 부자’를 지지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호산나!”(마르 11,9,10)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마르 15,13)로 돌변하는 참담한 현실도 모두 언론의 농간 때문이다.

결국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외모 지상주의’에 맞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고 ‘정보화 시대’에 맞서 ‘복음화 시대’를 여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와 이를 드러내는 복음은 반드시 ‘이미지’가 아닌 ‘리얼리티’로 선포되고 ‘생김새’가 아닌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그 참됨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선포하는 주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루카 24,1-12 참조)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사도 2,14-41 참조)이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은 ‘유령’(루카 24,37 참조) 같은 허상이 아니라 ‘살과 뼈’(루카 24,39 참조)처럼 우리 삶의 근간으로 육화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은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내 손발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상처’(요한 20,20 참조)로 생생하게 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역시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최고의 칭찬은 “성당이 참 아름다워요!”가 아니라 “천주교는 뭔가 달라요!”라는 말이다.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이 명동성당을 좋아했던 이유는 사진 찍기 좋고 혼인하기 좋은 곳이었어서가 아니라 최루탄과 경찰의 곤봉을 피해 숨어들 수 있었던 최후의 피난처여서가 아닌가! 그러니 ‘외모’는 ‘본질’을 가릴 수 없고 ‘말’은 ‘삶’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

출처 : 월간 생활성서



기억할 선종 사제

이태식(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부제
1969년 8월 10일

교구/본당

전국 관리국장 회의

일시: 8월 10일(수)
장소: CBCK

전국 사무처장 회의

일시: 8월 11일(목)
장소: CBCK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연수

일시: 8월 9일(화) 09:3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봉사자 임명식 및 개강미사

일시: 8월 13일(토) 10:0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 공부 개강

일시: 8월 30일(화) 10: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과목: 마태오복음서
대상: 성경에 맞닿고 싶은 분
신청: 당일 접수(수강, 교재비)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교구 성경사목부 말씀 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8월 19일(금)까지(면담 후 봉사자 활동)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well-dying 교육(교구 연령 연합회 교육분과)

일시: 8월 16일(화) 10:00~12:00
(미사 있습니다)
장소: 월남동성당 사랑의 집
내용: 어떠한 죽음을 원하는가?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8월 수어미사는 없습니다.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8월 기도모임은 없습니다.

문의: 회장 010·3903·8234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코로나19 외국인주민 통역 서비스

교구 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외에도 본당 내 외국인주민들과 기업체 외국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창원이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터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테툼어)

문의: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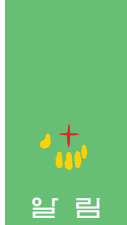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8월 14일(주일)~15일(월)/
9월 3일(토)~4일(주일)/
3박 4일- 8월 25일(목)~28일(주일)/
9월 30일(금)~10월 3일(월)/
8박 9일- 9월 19일(월)~27일(화)/
10월 25일(화)~11월 2일(수)
40일: 9월 14일(수)~10월 23일(주일)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8월 8일(월) 19:00	중앙동성당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라.	이해봉 토마스(서울대교구)	김종필 가브리엘 신부	010·5072·5612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시	원하는 곳	010·6608·3217(김종관 미카엘 신부)	ofmkvocation@gmail.com

■제주·추지도 순례 모집 주중·주말 매주 출발 ■한국성지 167 완주 모집 9. 19.(월)~22.(목) 청주·안동교구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세례자 요한) 010.5053.5393	파크 골프 채 최고의 골프기능 특별할인 기회 NAVER에서 아리랑파크 골프채로 검색 선택 후 010-3599-0745로 연락주세요. 파크 골프 스포츠 대표 김요셉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온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항공, 숙박, 버스 포함 1인 34만 원 오점살, 회정식 제공 2인 1실 marcus-1.com(마르코성지순례) 010.5150.2625 Anna Organ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225 신항만 부영 3단지 307동 104호 전경선 안나 010 6409 4809 “조보 반주자 환영”
--	--	--	--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8월 20일~22일/ 8월 26일~28일/
9월 15일~17일

성지순례(추자도): 11월 5일~8일/ 11월 12일~15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갇힌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일시: 8월 27일~29일/ 9월 3일~6일/ 9월 15일~17일/
9월 19일~21일/ 9월 25일~27일/ 10월 1일~3일/
10월 8일~10일/ 10월 11일~13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청도 성모솔숲마을 치유 프로그램

■효소 단식치유 피정 3박 4일

일시: 매월 셋째 주(목~주일)

참가비: 30만 원(효소비 포함)

■성모님과 함께하는 치유 피정

일시: 매월 넷째 주 금~주일(2박 3일)

참가비: 무료(선착순 50명)

신청: 9월부터 접수

문의: 성모솔숲마을 054·373·3955

예수회센터 온라인 동영상 녹화 강의(9월 개강)

내용: 영신수련, 하느님 사랑의 뜻을 찾기 위한
여정

·삼위일체하느님과 영적성장

·창조, 조상들, 탈출, 광야-모세의 책 네 권

·가톨릭 신앙과 영성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kr>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zoom강의)

기간: 10월부터 1년/ 수강료: 3개월 30만 원

시간: 19:30~21:30

(히브리어-수요일/ 히랍어-월요일)

문의: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피정 또는 단체 피정(5명 이내)

교육: 교리교육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로템의집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상담원(사회복지사) 1명

접수: 8월 10일(수) 18:00까지,

전자우편(rothem03@hanmail.net) 및
방문 접수

제출서류: 응시원서(로템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문의: 055·292·4747

▶구체적 사항은 로템의집 홈페이지(www.rothem03.or.kr),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채용정보 참조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주방 1명, 시설관리 1명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접수: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cecomasan@gmail.com)

문의: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면접 추후 개별 통보



소식



산호동본당 사랑하올 어머니 Pr. 2,000차 기념 주회



산호동본당(주임: 김용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사랑하올 어머니 Pr.(단장: 서옥이 미카엘라)은
지난 6월 28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사랑하올 어머니 Pr. 단원들은 40년 동안 매
주 화요일 함께 주회를 하였으며, 단원들은
봉사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꾸리아 간부와 브레시디움 단
원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기쁨을 함께 나누
었다. 본당 주임 신부는 “2,000차 주회를 맞
이한 사랑하올 어머니 Pr. 단원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하며, 새로운 2,000차를 향하여 열
심히 활동합시다.”라고 전하였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치는 법이 없습니다”

나자렛 예수 수녀회

본당의 교사들에게 5회에 걸친 실천교리 연수를 해 달라는 친구 신부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만난 교사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 능력, 리더십, 지식, 창의력 등이 매우 뛰어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안에서는 일치와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느껴졌습니다. 일치와 겸손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가치이기에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안에서 교사들이 일치와 겸손의 마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며 실천교리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실천교리교육은 신앙과 인성을 겸비하여 관계 안에서 서로 경청하고, 서로의 것을 받아들이며 머리가 아닌 마음을 채우는 교육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찾음으로써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는 교육이기에, 교사들 모두 머리가 아닌 마음을 채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사들 모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겸손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5회차 마지막 교육에는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이 직접 교리에 참여하여 교구를 작업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해 왔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5-7)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Kenosis)’을 언어화, 시각화, 이미지화, 동작으로 표현하는 공동작업과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교구 작업을 통해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이성과 감성으로 직접 체험하고 또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구 실습은 유리컵과 물이 든 주전자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형상화한 유리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사랑 등을 표현하는 물을 설명한 뒤, 한 개의 유리컵에는 물을 70%만 담고, 다른 컵에는 물이 넘치도록 가득 따르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습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 10살의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과 접목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이 주는 가치를 얼마나 이해했을까 싶었지만 예상외로 어린이들의 나눔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물이 적게 담긴 컵은 어느 곳으로 옮기더라도 물이 흐르지 않고 주변을 어지럽히지 않지만, 물이 가득한 컵은 조금이라도 컵을 움직이면 손도 물에 젖고 주변도 물이 흘러 엉망이 되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도 마음이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조금씩 비워야 해요.”라는 어린이의 말에서 아이들이 연수가 지향하는 가치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구 실습은 높이가 아주 낮은 문, 또 다른 문은 그보다 조금 높은 문을 만들어 기차놀이를 하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장난을 치느라 머리를 숙이지 않고 문을 통과하다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였고, 아래를 보지 않아 문턱에 발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습 소감문을 발표하는 어린이들의 나눔도 첫 번째 나눔과 같이 깊이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거나, 발밑을 보지 않으면 머리를 부딪치고 발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라고 말한 어린이들에게 대표 교사가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야기할 친구 있나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넘치지 않을 만큼의 물이 담긴 유리컵의 마음처럼 넉넉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마음이에요.” “고개를 숙이는 마음이에요.” 등의 대답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꾸밈없는 어린이들의 대답은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마지막 교육에서 어린이들의 맑은 마음과 가림 없는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을 교육에 참석한 모든 이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되새기며 교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겪었을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내면의 갈등 앞에서,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형제, 자매 앞에서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을 나눈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 매일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향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